

벌써 2021년 준비하는 LG 구광모號... 재계 첫 사업보고회

# ‘고객 중심’ 기반 디지털 가속... ‘뉴 LG’ 내년이 더 밝다

## 구광모 회장 사업보고회 주재

코로나19에 1년 만에 개최 실적·기술·LCD 투자 등을 경영 성적표 우수 ‘의미’ 내달 말께 정기인사 단행

LG그룹이 일찌감치 연말 결산을 시작한다. ‘고객 만족 경영’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빛을 발한 상황, 계열사 전반에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구광모 회장 중심 ‘뉴 LG’에도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이날부터 1달여간 사업보고회를 진행한다.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개최했지만, 올 초에는 코로나19로 취소한 탓에 1년 만에 열게됐다.

LG 사업보고회는 그룹과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그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다. LG는 사업보고회를 바탕으로 11월말 정기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구광모 회장이 경영 4년차를 앞두고 주재하는 사업보고회로 관심이 높다. 그동안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색



구광모 LG 대표

깔을 드러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영 성과도 긍정적이다. LG전자가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LG화학과 LG유플러스 등 핵심 계열사들도 높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OLED 패널 생산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IPS 등 고급 기술을 내세운 LCD 사업까지 대박이 나면서 7분기만에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된다.

여기에는 구 회장이 강조해왔던 ‘고객 만족 경영’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구 회장은 그동안 임직원들에 고객 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LG전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트루 스템’을 비롯한



구광모 LG 대표가 서울 서초 R&D캠퍼스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객 중심 상품성이 꼽힌다. 기술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 구 회장은 2018년 총수에 오른 후 첫 행보로 LG사이언스파크를 택한 이후 11번이나 발걸음을 하며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개발을 당부했다. 덕분에 올해 대형 OLED 양산 안정화와 소형 OLED 공급, 배터리 등 전장 사업 확대 등을 이뤄내기도 했다.

내년 전망도 밝다. 가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업 효율화 성과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LG전자는 벨벳에 이어 LG윙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적자폭도 크게 줄고 있는 상태다. OLED 패널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 전장 소재 등 부문에서도 연이은 호실적이 기대된다.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 작업은 이번 사업보고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총을 통해 분사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구 회장은 새로운 조직구성과 사업 계획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은 최근 다양한 회유책으로 주주들 달래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3분기 정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3년간 고배당 정책까지 약속했다. 세계 최



서울 여의대로 LG트윈 타워. /연합뉴스

초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화학만의 높은 경쟁력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사업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프로야구단인 LG트윈스가 올 시즌을 2위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2013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순위로, 2002년 이후 18년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26년만의 우승 기대감도 커졌다. 최근 선수들이 ‘스위블 세레모니’로 LG윙을 응원하기도 했다. 만약 우승까지 해낸다면 구 회장이 선대 회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되는 셈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전문가 육성 토양인데... SOC 중 정보통신만 박물관 없어 안타까워”

## 인터뷰 | 김부중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

체신부부터 한국통신까지 정보통신 근대화 산증인

“박물관을 만들어야 정보통신 발전 역사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이 생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더 이상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끈질기게 끈을 놓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만난 김부중(81)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한국통신 기획조정실장, KT 파워텔 사장 등 역임)은 결의에 찬 눈으로 이 같이 말했다.

김부중 회장은 과거 체신부 시절부터 한국통신 시절까지 정보통신 기획 분야에 35년 넘게 종사한 정보통신 근대화의

산증인이다. 1985년 통신 100주년을 맞아 한국전기통신 100년사를 1년 간 편찬하기도 했다. KT 홍보실장을 역임하던 시절에는 서울 광화문 전기통신 발전 기념탑 건립 추진에 힘쓰기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 실무 경험자들과 관련 교수들이 20여명 가량 모인 비영리사단법인인 정보통신역사학회를 통해 전기통신 발전 기념탑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2016년부터 공중전화, 폐배, 초창기 휴대폰까지 매년 공모전을 열고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주제는 과거 문자 송수신 필수품이었던 텔렉스(Telex)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공모전이다.

그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전보·전화 등 정보통신 관련 내용이 교과 과정에 있는 만큼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이미지를 살리는 공모전을 여는 등 관심을 가지면 좋는데 학회 차원에서 간소하게만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부중 회장과 그의 일문일담. -우리나라는 통신 인프라 보급 및 접근성에서 손꼽히는 ICT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다. 135년의 정보통신 역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쉽게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정보통신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기통신 100주년을 맞을 때 전국적으

100주년 때 전사적 자료수집 운동 일제시대 유물 등 7500점 모아 박물관 있었지만 임대로 폐관

역사 평생 연구하는 인력풀 필요 자료 정보 인증할 종사자들 고통 함께 만들 시간 얼마 안 남아



김부중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이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로 자료를 수집하고 동대문 흥인시장이 나 일제시대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제품 등의 기기를 수집한 것이 7500점 정도 된다. 우리나라를 ICT 강국으로 만든 국산 기업들의 발자취가 녹은 1962년부터 1차부터 5차까지 통신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자료라 IT 강국의 살아있는 증인인 셈이다. 이를 가지고 1993년에는 용산전화국에 정보통신박물관을, 1996년에는 남대전에 충남정보통신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당시 홍수 때문에 용산전화국은 실내까지 물에 차서 부수고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폐관됐고, 남대전 전화국도 새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느라 박물관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 후로도 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내던져졌다.”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

“상당히 안타깝다. KT 등 정보통신 기업에서도 자료관리가 폐지되고 정부에서도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다. 역사 편찬이나 자료, 역사적 가치 물품 등 발굴, 보존, 전시 등 조사연구 분야는 행정업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중 건설교통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철도박물관, 교통박물관, 항공박물관 등이 마련돼 있고 산업자원 또한 전기박물관과 석탄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 정보통신 역시 대표적인 SOC이고, 관련 자료나 유물도 많은데 유독 박물관이 없다.”

-우리가 정보통신 역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에 박물관이 825개나 되고 학예사 등 종사자도 1만7978명에 달한다.

연구원은 1595명이다. 박물관을 매개로 정보통신 역사를 평생 연구하는 인력풀이 있어야 한다. 정부행정이나 기업 업무의 아웃소싱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통신 박물관 개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은 자동화,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소형화·집중화돼 유휴청사나 건물이 많다. 유휴건물들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나 자료에 반드시 어디에 사용됐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이나 제조시기 등의 기록으로는 설명서가 없으면 유물의 가치가 없다. 이는 대학교수도 모른다. 옛날 전화국에서 수리하던 사람들, 통신 기기를 테스트한 사람, 중계기를 운영했던 사람 등 종사자들이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70~80대 고령에 접어들어 안타깝다. 더 늦기 전에 과거 정보통신 실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서를 기록해야 한다.”

-향후 학회 계획이 궁금하다.

“우선 광화문에 있는 전기통신발전사 기념탑을 지금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게 하려고 한다. 역사성이 없는 기념탑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 발전사 기념탑이 위치한 종로구 세종로 공원은 한성전보총국 등 통신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던 역사적 자리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자료의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자료설명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 이 일을 할 사람들이 70~80대라 시간이 얼마 없다.” /김나인 기자 silkni@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자리한 전기통신발전사 기념탑.